

‘원숭이학교 오감만족체험전’ 동물전시문제에 대한 의견서

■ 내용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원숭이학교 오감만족체험전’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령 위반 및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해하는 요소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을 이용한 공연과 전시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 사육중인 원숭이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토끼를 꽃전시관에서 철거하여 원래의 사육지로 돌려보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사유

I. 현행 법령 위반 혐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일본 원숭이 등을 사육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을 등록해 시설 허가를 받은 뒤 동물을 사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학교 측이 지난 12월 20일 원숭이들을 반입한 꽃전시관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며, 원숭이학교 측 역시 지난 12월 22일 꽃전시장에서 사육시설 미등록 상태로 원숭이를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숭이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시설을 뒤늦게 ‘등록 신청’ 하여 추후에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변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는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등록 신청’ 중인 자 또는 ‘추후 등록’한 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후 대응에 관계없이 미등록시설에서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것 자체가 이미 현행법 위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원숭이학교 일산 공연은 불법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원숭이 한 마리 당 사육장의 크기가 넓이 11.6㎡, 높이 2.5m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해 원숭이 사육시설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시기적으로도 이미 수 백 곳의 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시설등록 허가를 몇 개월 째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원숭이학교측이 체험전이 끝나는 2015년 3월 1일 이전에 사육시설등록 허가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II.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 예정

서울·경기 지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담당자 이승준 주무관 031-790-2827)측은 ‘원숭이학교 오감만족체험전’의 원숭이 반입의 위법성을 묻는 본 단체의 질의에 대해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 장소를 이동할 시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 측은 원숭이 학교 측으로부터 양수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숭이의 미신고 이송이 확인될 시 즉시 행정처분 하겠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Ⅲ. 살아있는 토끼 전시의 문제

‘원숭이학교 오감만족체험전’ 부스에서 전시되고 있는 토끼 20마리는 동물자유연대의 소음측정(모델명: TES-1350A) 결과 최대 81dB, 평균 77~79dB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하철의 차내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은 소음에 민감한 토끼의 청력 이상 유발은 물론 폐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중인 토끼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은신처를 찾지 못해 벽에 붙어 있거나 땅을 파는 습성을 충족하지 못해 바닥을 계속 긁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기본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Ⅳ. 왜곡된 생태교육

야생동물을 의인화한 쇼나 작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가두고 구경하는 방식의 동물체험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생동물을 조련하거나 아무 제한 없이 가둘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어 동물에 대한 반생태적이고,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학교는 공연 도중 원숭이가 높은 공연무대 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고, 총에 맞은 척 하며 무대 끝에 엎드리거나, ‘성적표’를 받은 원숭이들이 종이를 찢어 스스로 먹게 하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동물쇼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충족 외엔 별다른 교육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어린이들이 원숭이의 행동을 따라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귀 기관이 우리 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1. 원숭이학교 공연과 토끼 전시를 즉시 중단하고, 2. 불법 사육중인 원숭이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토끼를 꽃전시관에서 철거하여 원래의 사육지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시 동물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을 이용한 인위적인 쇼를 금지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관에서 원숭이를 의인화한 불법적인 쇼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것은 마치 불법 반입한 원숭이를 이용하는 쇼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숭이학교 측은 장소를 제공한 귀 기관이 제재하지 않는 한 공연을 스스로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동물의 안전과 건전한 멸종위기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첨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첨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일부 발췌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1.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중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영장목 (PRIMATES)			
긴꼬리원숭이과 (Cercopithecidae)			
1	흑백콜로부스	<i>Colobus guereza</i>	II
2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i>Macaca fascicularis</i>	II
3	일본원숭이	<i>Macaca fuscata</i>	II
4	히말라야원숭이	<i>Macaca mulatta</i>	II
5	돼지꼬리원숭이	<i>Macaca nemestrina</i>	II
6	검둥이원숭이	<i>Macaca nigra</i>	II
7	보넷원숭이	<i>Macaca radiata</i>	II
8	사자꼬리원숭이	<i>Macaca silenus</i>	I
9	토쿠원숭이	<i>Macaca sinica</i>	II
10	사바나원숭이	<i>Cercopithecus aethiops</i>	II
11	아누비스개코원숭이	<i>Papio anubis</i>	II
12	다이애나원숭이	<i>Cercopithecus diana</i>	I
13	맨드릴	<i>Mandrillus sphinx</i>	I
14	데브라자원숭이	<i>Cercopithecus neglectus</i>	II
15	녹색원숭이	<i>Chlorocebus sabaeus</i>	II
16	망토개코원숭이	<i>Papio hamadryas</i>	II
17	모나원숭이	<i>Cercopithecus mona</i>	II

첨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일부 발췌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원숭이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샤망원숭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 넓이 31.5㎡, 높이 3m	42%
	토쿠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본원숭이,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손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흑백콜로부스	- 넓이 11.6㎡, 높이 2.5m	42%
	검둥이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올빼미원숭이, 데브라자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녹색원숭이, 보넷원숭이, 모나원숭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코주부원숭이	- 넓이 5.3㎡, 높이 3m	35%
	목화머리타마린, 코먼마모셋, 슬로우로리스, 흰털케프친, 마모셋원숭이	- 넓이 2.8㎡, 높이 2.5m	35%
	다람쥐원숭이	- 넓이 1.6㎡, 높이 2.5m	35%

첨부 4. 2015년 12월 22일 ‘원숭이 학교’ 공연 사진



첨부 5. 꽃전시관 내에서 전시중인 토끼 사진과 소음측정 사진. 끝.

